

#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 공연 인기

### 진도개 우수성 알리기 위한 공연 실시 11만여 명 관람객 테마파크 방문해



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도개 테마파크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진도개 공연·경주 경기

인기를 끌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개테마파크에서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의

영민함과 우수한 재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공연을 실시해 현재까지 11만여명의 관람객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

올해 진도개 공연은 지난 3월 초부터 운영하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진도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연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총 2회 실시하며, 토요일 주말에는 오후 1시에 열리고 있다.

현재 평일에는 100여명 이상 주말에는 300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진도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진도개 테마파크를 방문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1등 진도개를 맞춰라 진도개 경주 경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진도개 썰매장, 홍보관, 방사장, 산책로, 강아지 등산, 미니동물농장 등 진도개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진도군은 진도개를 보기 위해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더욱 흥미롭고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팔백리길을 돌아온 백구 생가 토끼어리 조형물 ▲어르(大수영장)수렵장 ▲진도개 애견 캠프장 등도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테마파크담당 관계자는 "연중 진도개테마파크에서 진도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 진도개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불거리·체험거리·즐거거리 등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도개테마파크에서 제27회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 강진군, CCTV 비상벨 방송 시스템으로 음악 서비스 제공

### 15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음악 방송

강진군이 15일부터 세계모란공원, 강진호수공원, 강진만 생태공원 등 군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를 대상으로 CCTV 비상벨 방송 시스템을 활용한 음악 서비스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한다.

공원 내 위급 상황에만 사용해야 이용 빈도가 낮았던 CCTV 비상벨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은 음악 서비스 이외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공원 내 취사금지, 소란행위 예방 등에 관한 계도 방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CCTV 비상벨 시스템은 위급 상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강진군 CCTV 관제센터 관제원과 1:1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황에 따라 경찰차, 119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에는 세계모란공원, 강진호수공원, 강진만 생태공원, 강진여중, 강진버스터미널, 강진치과와 사거리 등 총 6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목포시, 정책실명제 국민 신청실명제 운영한다

### 오는 31일까지

목포시가 정책실명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9년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대상이 되는 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등이다.

앞으로 시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로 운영할 방침으로 목포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 이메일(mokpoplan@korea.kr), 우편(목포시 양로로 203,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4월 제정된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61건을 선정하고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해남군, 위험한 나무 제거 서비스 실시

### 강우·태풍 등 나무로 인한 시설 피해 방지

해남군이 생활권 내 재해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녹색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올해로 3년째 실시되고 있는 위험한 나무 제거 서비스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의 현장 심사를 거쳐 재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거해 주고 있다.

특히 강우와 강풍,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흔들려 가옥이나 전선 등에 발생하는 시설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14개 읍면에서 264건을 접수받아 대나무 100주와 단순 불면

목 59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06주에 대해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첫해인 2017년에는 148주, 2018년 407주를 신청 받아 나무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실시했다.

군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졌을 때 응급복구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생활권 내 제거할 위험목이 있는 주민은 신청기간에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담당 부서의 현장 심사 후 위험목 제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완도군, 상반기 평생교육 99개 강좌 3천여 명 함께 해

###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배움 기회 지속적으로 제공



'모두가 행복한 해상 학습도시 완도'라는 비전을 내걸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는 완도군의 평생교육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평생교육원 운영, 성인 문해 교육, 직업 훈련 교육, 명사 초청 군민강좌, 늘 배움 지원 강좌, 운전면허 현지 취득 지원 사업

등 6개 세부 사업을 추진 3,073명의 군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군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월에는 연간 및 세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했으며, 2월말부터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증진을 위해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했다.

그중에서 현대인의 건강관리, 노래교실, 상모놀이 등 문화예술 강좌와 인문교양 강좌, 여가선용 강좌에는 1,468명의 군민이 함께했다.

또한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일상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800만 원을 지원받아 23개의 한글 교실과 기초 정

보화교실을 운영, 어르신과 결혼 이주민 27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직업 훈련교육으로 ITQ 자격증 반을 운영하여 42명 교육을 받고 2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피아노 컷팅 아트와 창의력 공작소, 약용차 제다 과정 등 늘 배움 지원강좌와 명사 초청 군민강좌, 운전면허 현지 취득 지원 사업 등에는 군민 1,331명이 참여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군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군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반기 평생교육원 운영, 평생학습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영암군 목재문화체험장, 방학기간 할인

영암군 목재문화체험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학생 및 가족,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목재 체험프로그램 할인행사를 운영한다.

영암 목재체험장은 2015년 9월 개장하여 목재문화 저변확대와 목재문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놀이공간 운영,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쿠미케(동물모형, 인물모형 만들기 등), 우드버닝(나무에 캐릭터, 풍경화, 인물화 그리기 등), 반제품(연필통, 독서대, 책꽂

이, 저금통 등), DIY 가구만들기(의자, 트레이, 편백가구 등)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재료비를 50% 할인 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목재체험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동안 서로 협력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름방학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험을 통해 만들어진 목제품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신안군, 논두렁 동력제초기 공급 '호평'

신안군에서는 논농사에 있어 가장 어려움이 많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제초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논두렁 동력제초기를 농가에 공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번 공급한 논두렁 동력제초기는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6.3마력 엔진작 및 60kg의 가벼운 중량과 간단한 조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안

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 시간과 노동력 모두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논두렁의 형태 및 잡초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고, 주행2단과 후진단의 변속 기능이 있어 기존의 예초기 사용에 비해 2배 이상의 작업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